무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기쁨’ 이란 뜻이에요. 공간을 꾸미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오롯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물의 흐름에 가만히 나를 맡길 수 있는 현무암 자쿠지는 6인이 함께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예요.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주 앉은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차를 마시는 공간도 두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전하고 싶어 고재를 인테리어에 활용했고, 무디타에서만큼은 눈 역시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도에도 신경을 썼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부터 이곳 수산리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의 무디타가 있는 곳은 원래 소를 기르던 창고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오랜 기간 비어있었는데, 볼 때마다 그 공간이 아깝고,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디타를 만들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 저,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손님들의 조식을 짓고, 아버지는 객실에서 사용하는 무표백 소창 수건을 만드세요."

무디타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18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서3길 11-4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제주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가정식 조식

• 제주 잎차와 차를 음미할 수 있는 다도 공간

• 무표백 소창 수건과 베딩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편안한 휴식 속에 잊고 있던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고 싶은 분

• 친환경 어매너티, 천연 수세미 등 제로웨이스트 여행을 희망하는 분

• 나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춘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아이 동반 여행일 경우, 미리 요청하면 조식의 간을 약하게 조절 가능해요.

• 햇살 쨍쨍한 날의 여행도 좋지만, 감각에 집중하는 무디타에서는 비 오는 날도 좋아요.

• 숙소에 TV가 없어요. 대신 마주 앉아 차를 나누는 다도 공간이 있어요.